

'22년 8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8.17	회의실	9/12	4	1	14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고아라·곽선희·김영신·송경용·심상돈·오광호·임동훈·조경완·최정욱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윤행석(콘텐츠본부장), 이계상(뉴스팀장), 황한영(경영인프라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차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2	4	6	0	0	10	0	12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2	0	0	12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방송편성	<오늘도 출근> 한국방송대상 수상 기념 편성 바람	-<오늘도 출근> 편성 조치(9.5)	'22.8.
"	특집방송 부족 아쉬움	-특집 다큐멘터리 <마한>, <서편제 보성소리>, <솔로하우스>, <레드디쉬; 김치> 등 제작 중(방송 10월~), <특집 풍류달빛공연>(8.20) 방송 조치	"
보도	<시사 ON> 광주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 관련 방송, 광주시교육청 관계자 출연 없어 다양한 의견 부족했음	-시사보도 책임자,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시사 ON>,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통한 정보 제공 바람	-시사보도 책임자,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광주의료원 설립 관련 다시 한번 깊게 다뤄주길 바람	-<시사 ON> 광주의료원 설립 성공 요건과 해결 과제는(8.26) 방송 조치	"
"	<뉴스데스크> 앵커 의상의 어깨선 정리 필요	-시사보도 책임자,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교양	<본방을 보자> ‘쑤인 노래방’ 코너, 참가자 화면 답답하고 시청에 불편	-편성 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본방을 보자> ‘쑤인 노래방’ 코너, 연결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가 있음	-편성 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유의 권고 조치	"
"	<본방을 보자> 진행자 배경화면 처리 시 단순하고 깔끔하길 바람	-편성 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본방을 보자> 그래프 이용 통한 다양한 화면 제공 및 노령자, 청각장애인 등 배려를 위한 자막 활용 등 바람	-편성 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본방을 보자> 매끄럽지 못한 인터뷰 진행 아쉬움, 전문용어 자막 설명 등 필요	-편성 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본방을 보자> 장성호에서 레저를 즐기는 장면에서 출연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아쉬웠음	-편성 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유의 권고 조치	"
총 건수		12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 용	참 고	반 론
방송편 성	<오늘도 출근> 한국방송대상 수 상 기념 편성 바람(김영신)	9월 5일(월) 18:05 앙코르 편성 할 예정임	○		
"	특집방송 부족 아쉬움(최정욱)	특집 콘텐츠는 시기적으로 물리 는 경향이 있음. 매월 특집보다는 하반기에 집중되니 관심 부탁드 림	○		
보도	<시사 ON> 광주고교 시험지 유 출 사건 관련 방송, 광주시교육 청 관계자 출연 없어 다양한 의	광주시교육청 관계자가 생방송 직전 출연 불가를 통보하는 바람 에 미처 대처할 겨를이 없었음.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 용	참 고	반 론
	견 부족했음(오광호)	다음에는 패널 구성에 더욱 신중 히 처리하겠음			
"	<시사 ON>, 다양한 사례와 자 료를 통한 정보 제공 바람(임동 훈)	업무추진비 공개 내용 등에 관한 해외 사례 등을 추가로 취재해 보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		
"	광주의료원 설립 관련 다시 한 번 깊게 다뤄주길 바람(심상돈)	‘광주의료원 속도 낼까?’라는 제 목의 리포트를 8월 13일 보도했 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심 두고 취재하겠음	○		
"	<뉴스데스크> 앵커 의상의 어깨 선 정리 필요(심상돈)	의상에 늘 신경 쓰도록 뉴스 진 행자들에게 주지시키겠음	○		
교양	<본방을 보자> ‘쫄인 노래방’ 코너, 참가자 화면 답답하고 시 청에 불편(곽선희)	시청하기에 편한 방향으로 개선 하도록 노력하겠음	○		
"	<본방을 보자> ‘쫄인 노래방’ 코너, 연결상태가 좋지 못한 경 우가 있음(최정욱)	예행연습 강화하겠음.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직접 참여하는 라이 브 방송의 특성을 고려해서 봐주 시길 바람	○		
"	<본방을 보자> 진행자 배경화면 처리 시 단순하고 깔끔하길 바 람(곽선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음	○		
"	<본방을 보자> 그래프 이용 통 한 다양한 화면 제공 및 노령자, 청각장애인 등 배려를 위한 자 막 활용 등 바람(오광호)	‘뉴스본방’ 코너에서는 CG 활용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 음	○		
"	<본방을 보자> 매끄럽지 못한 인터뷰 진행 아쉬움, 전문용어 자막 설명 등 필요(임동훈)	인터뷰 진행 시 더 자연스럽게 완성도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전 문용어는 보기 편하도록 설명하 겠음	○		
"	<본방을 보자> 장성호에서 레저 를 즐기는 장면에서 출연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아쉬웠음(송경용)	현장 촬영 시 순간적으로 놓친 상황이었으며 다음에는 유의하여 제작하겠음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2년 8월)

일 시		2022. 8. 17. 수. 오후 5시	장 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고아라, 곽선희, 김영신, 송경용, 심상돈, 오광호, 임동훈, 조경완, 최정욱(9명)		
	회사	김낙곤 사장,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윤근수 시사보도본부장, 황한영 경영인프라본부장(4명)		

■ 회의 내용

- 조경완 위원장 : -고아라 위원 위촉은 위원회의 다양성 면에서나 세대 간에 소통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활약을 기대한다. 어렵고 힘든 계절에 경영, 제작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하루 하루 광주MBC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는 모습이다. 시청자위원으로서 애정을 갖고 봐서 그런지 항상 재미있고 잘 봤다. 광주MBC는 만나면 좋은 친구여야 한다. 잘 제작하길 바란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나치게 제작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면 언론의 자율성을 해치게 된다. 또 지나치게 잘했다고만 하면 시청자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임무를 회피하게 된다. 유의하고 생산적인 시청자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8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 김낙곤 사장 : -8월 여름 휴가철인데 시청자위원회를 열게 됐다. 이번 코로나는 후유증이 심각한 거 같다. 고아라 위원님 너무 감사드린다. 시청자위원회는 법적 기구로서 세대, 성별, 분야별 다양한 시청자를 대변하는데 고아라 위원님 좋은 분을 모셨다고 생각한다. 광주MBC를 위해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위와 휴가철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
- 조경완 위원장 : -업무보고를 해달라.
-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 -<오늘도 출근> 10부작이 제49회 한국방송대상 뉴미디어 프로그램 부문에서 작품상을 수상한다. 웨이브나 유튜브에서 광주MBC 오늘도 출근을 검색해 보길 바란다. 뇌성마비 장애인 기자, 싱글 맘, 프리랜서 강사, 외국인 노동자,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 등 10명 직업인의 땀 냄새나는 삶을 15분 짜리 미니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다. TV 정규 제작 프로그램으로 <라이브쇼 본방을 보자>, 라디오 정규 제작은 <시사인터뷰 오늘>, <정오의 희망곡>, <놀라운 세시>를 방송하고 있다. 특집과 디지털 콘텐츠로는 <2022 풍류달빛공연> 녹화가 8월 27일에 있고, <전설의 타이거즈>는 최상덕, 김진우 편과 윤석민, 박지훈 편을 제작 예정이다. 또 나주 신청에서 <얼씨구 TV>를 제작하는데 박춘매와 제자들, 장문희와 제자들 편을 제작한다. 또 향후 계획은 광주노래 만들기 프로젝트를 8월 말 착수할 예정이다. 유명 뮤지션 여섯 명이 광주의 명소를 특별하게 소개해 자신의 추억을 공유하고, 여섯 곡의 광주노래를 완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다. 연중 캠페인 <무등산을 사랑하자> <더불어 삽니다> <영산강> 계속하고, 특집다큐멘터리 <마한 톨아보기>, <서편제 보성소리>를 하반기에 방송할 예정이다. RAPA 제작지원 특별기획 <레드디쉬: 김치> 제작 중이며 연말 방송 예정이고, 솟품 다큐 <솔로 하우스>는 12월에 OTT 왓차에 업로드 예정이다.
- 조경완 위원장 : -<오늘도 출근>은 지상파 방송은 안 하나?
-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 조경완 위원장 : -김치 다큐멘터리는 몇 편 제작하나? 해외 취재도 하나? 김치 소재는 처음인가?
-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 -50분짜리 4편이다. 분량도 많고, 작년부터 촬영이 이뤄지고 있다. 해외 취재는 직접 가지 못하고 그쪽에 있는 제작팀에 의뢰해서 제작물을 받는 형식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묵은지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다. 10여 년 된 거 같다.
- 윤근수 시사보도본부장 : -광주MBC <항쟁과 언론>이 5.18언론상을 수상한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한 내용임, 시상식은 8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에서는 단독 아이템 발굴 보도로 호평을 받았다. 고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청구 불합리 보도를 통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고, 곡성 산사태 검찰 수사 난맥상 연

속보도로 검찰 수사가 재개됐다.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특보를 준비 중이다. 재해 상황에 따른 긴급 방송 매뉴얼을 정비하고, 지상파뿐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도 할 예정이다. <시사 ON>에서는 예산 감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광주 상생카드, 재난지원금 예산을 점검하고, 기 후위기 예산, 단체장 업무추진비 활용 실태를 살펴봤다. 서울-지역사 공동 기획 보도로 선거비 먹튀 관련 보도를 했으며, 디지털 뉴스를 강화해 유튜브 제작물을 늘렸다. 8월 말까지 광주MBC 유튜브 구독자 5만 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뉴스 아이템 차별화를 위해 단독 아이템을 발굴하고 참신한 시각이 돋보이는 아이템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행정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발굴하겠다. 여름 휴가철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을 대비하고, 창사 특집방송은 방송 횟수를 늘리기보다는 고품격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 조경완 위원장 : -지역 언론의 검찰 비판 기사가 드문데 보도를 했다. 피해자가 강하게 컴플레인을 하니 동력이 됐겠지만,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뢰한 자체가 사람이 죽었는데 수의사에게 부검을 맡긴 거나 똑같은 것이다. 한참 있다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빈손인 상태다. 연속해서 보도를 잘했다. 수고 많으셨다.
- 박선희 부위원장 : -<본방을 보자> 8월 4일 뉴스본방에서 코로나 소식과 함께한 검사장소 안내 소식, 휠체어 사용, 바우처 택시 이용 안내와 교통약자 센터 안내는 유익했다. 장성호 등에서 펼쳐진 수상스키의 시원한 화면, 남창계곡이나 양양 바다 무한 즐기기 등 여름 피서지 소개는 오픈 채팅방 시청자들도 공감했듯이 시청자들의 무더위를 잠시 잊게 하며, 상큼한 화면, 선명한 푸른색 물들이 무더위 해소에 도움이 된 듯했다. 8월 10일 월간 본술랭 가이드 등 맛집 소개는 꼭 가보고 싶은 장소이고 보면서 평가를 하려는 마음을 애타고 빠져들게 했다. 8월 11일 줌인 노래방 부분에서 신청하신 분이 노래 부를 때 얼굴을 확대하여 얼굴만 너무 크게 키운 화면은 시청하는 데 답답하고 불편하였으며 참가자 화면도 좀 더 변화를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시청자 관심사를 여러 분야에서 소개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개인적 소견으로는 MC들 배경이 너무 잘게 화면 처리가 되어 있어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좀 더 단순하고 깔끔한 배경화면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 오광호 위원 : -<시사 ON> 광주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 예산 ON 업무추진비 예산 뜯어보기 의견이다. 4년 전 그리고 최근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 사건 개요와 현재 진행 내용을 자세히 다루어져서 좋았다. 사건 개요를 이미지를 활용해 요약, 나열해줘서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다만, 현재 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할 때는 요약된 내용 없이, 광주시 교육감의 인터뷰만을 그대로 사용하여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아쉬웠다. 또한, 토론자 중 시민모임 살림위원장과 광주교사노동조합 사무총장을 각각 맡은 현직 교사 2명이 참여하여 학교 내 실정을 잘 이야기 해주었으나,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도 함께 토론에 참여하여 교육청의 견해를 들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토론에 참여하기 힘들더라도 사전 인터뷰나 전화 연결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추가로, 현재 학교 내 시스템 및 법령 등이 사립학교의 기준으로만 이야기가 되었는데, 공립학교의 현황과 함께 비교하여 이야기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예산 ON 코너에서는 광주, 전남의 업무추진비를 뜯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광주의 한 시민으로서 시청과 각 지자체에서 예산이 어떻게 투명하게 잘 쓰이는지 궁금했던 내용이 다루어져서 좋았다. 다만, 코너에서 광주시청 홈페이지 내 예산의 세부 쓰임을 알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 잘 실행이 되지 않아 아쉬웠다.

-<광주MBC 본방을 보자> 뉴스본방 코너를 통해 순천 주암댐 물 부족 문제, 광주·전남 급식비 문제, 전남여고 학생들의 만화 선수권대회 우승 등 광주·전남의 뉴스들을 간단하게 다루어져서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다만, 광주·전남 급식비 문제를 다룰 때, 다른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또한, 만화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전남여고 학생들과의 화상 통화를 통한 인터뷰는 생동감이 있어서 좋았지만, 전남여고 학생들이 인터뷰의 주인공인 만큼 진행자들보다 송출 면적이 더 컸으면 좋았겠다고 생각된다. ‘본방토크, 민주°C’ 코너를 통해 광주광역시 민선 8기에 대한 평가, 윤석열 정부의 초등학교 학제개편 추진 논란, 국민의 힘 비대위 추진 등 정치 이슈에 대해 잘 다루어져서 좋았다. 다만,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공진성 교수가 각 이슈에 관해 설명할 때 관련 영상을 송출하는 것도 좋았지만 시청자 중 노령자, 청각장

애인 등을 배려하기 위해 관련 키워드 등을 자막으로 송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윤근수 시사보도본부장 : -<시사 온>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다. 광주시교육청에서 출연하는 게 당연히 맞다. 그런데 방송 하루 전날 갑자기 못 나오겠다고 했다. 9월 1일자 인사가 난다. 교체가 기정사실로 되는 상태에서 이런 자리에 안 나오려고 한 것 같다. 부랴부랴 급하게 교육감의 기자회견 내용이라도 대신 넣다 보니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 임동훈 위원 : -<시사 ON> 프로그램 장점으로 최근 광주·전남지역 또는 전국적인 이슈를 가지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해당 이슈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심이 많은 시청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청자에게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 업무추진비 운영 사례를 다룬 편이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업무추진비의 분류를 설명하고, 시청자 참여를 통하여 업무추진비의 정상화를 위해 논하였던 부분은 좋았지만 타 국가 등 다양한 사례 등을 통하여 비교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으며 시청자들이 더욱 정확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방을 보자>는 다양하고 유익한 지역의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8월 10일 방송에도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가 많았는데 그 중 <이 시간을 달려 본방>을 통해 우리 지역에도 클라이밍 국가대표 선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은 지역민으로서 무척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인터뷰 진행이 매끄럽지 않아 큰 아쉬움이 있었다. 인터뷰를 시작할 때 자막으로 대체한 선수 소개는 시청자의 관점으로서 너무 갑작스럽게 인터뷰가 진행된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선수들이 출전한다는 미국 대회에 대한 정보가 적어 어떤 대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또, 흔히 접하기 힘든 클라이밍 용어나 종목 등은 자막으로 함께 보여주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고아라 위원 : -처음 나온 자리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말씀 잘 듣고 보완해서 다음번 위원회 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 김영신 위원 : -광주MBC가 제작한 <오늘도 출근> 10부작 프로그램이 방송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제49회 한국방송대상에서 뉴미디어프로그램부문을 수상했다고 하여 유튜브를 통해 몇 편 시청하게 되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축하드린다. 일단 제목만 보고는 평범한 우리네 직장인의 애환을 그린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몇 편 보다 보니 각자의 특별한 사연을 가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싱글맘, 싱글대디 등과 같은 사람들의 직업, 직장, 출근에 관한 이야기였다.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기획 의도 자체가 너무나도 참신하였고, 장애인 이동권, 친족법, 결혼가정에 대한 인식 및 돌봄 문제 등 사회적으로 한 번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이슈들을 실제 가정의 사례를 통해 친근한 방식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 최근에는 <본방을 보자> 프로그램에서 제작 후기라는 꼭지로 주인공들의 사연 및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환기해 주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사회적, 교육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만큼, 한국방송대상 수상 기념으로 재방송이나 특별편을 제작하여서 다시 한번 방영해 주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 송경용 위원 : -<본방을 보자>에서 장성의 홍길동테마파크에서의 어린아이들의 핫플 분수대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하지만 홍길동테마파크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분수대만 있다는 설명이 아쉬웠다. 물놀이 후 먹은 음식 닭볶음탕에 대한 맛 평가가 부족했다. 장성호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즐거워 보이고 재미있겠다 생각을 하게 해주어 보기 좋았다. 하지만 10분 15초 부분에서의 전문가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답답했다. 8월 10일 라이브 쇼에서 뉴스본방 김두식 아나운서가 첫 번째 뉴스 소식으로 코로나 소식을 들려주면서 자막 상으로는 “광주·전남 코로나 1만 명대 확진, 4월 이후 최대치”라고 했다. 김두식 아나운서는 말씀을 전하는데 1만 명을 10만 명이라고 말하였던 것이 조금 아쉬웠으나 빠른 말 바꾸므로 임기응변을 하는 모습이 아나운서가 지녀야 할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 보기 좋았다.

-<광주MBC 뉴스투데이>는 광주·전남 관련 뉴스프로그램으로 일기예보가 10분 간격으로 두 번 방영이 되어 시청자가 보았을 때 정보전달에 적합하고 좋은 구성이라 생각이 든다. 다만 8월 11일 방송되었던 한빛원전 관련 뉴스에 5년 전 한빛원전 3, 4호기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라도 내용 보충하여 전달되었으면 더 바람직한 뉴스가 되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 심상돈 위원 : -광주의료원 설립 '산 넘어 산' 보도 관련이다. 필수의료 중 하나인 감염병, 응급의료 전담 광주의료원에 대해 뉴스에서 다룬 것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구도심에 집중된 응급의료기관의 불균형 해소' 또한 새로운 표현으로 지금의 상황을 잘 표현해 주었다. 다만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탈락에 대해 '면제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만 언급한 것이 좀 아쉬웠다. 기회가 된다면 서남권 원자력의료원과 함께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다뤘으면 하는 바람이다. <뉴스데스크> 남자 아나운서 상의의 어깨선을 좀 더 산뜻하게 정리했으면 한다. 상의 재킷의 허리 부분을 아래도 당기고 앉을 때 깔고 앉으면 어깨선이 깔끔해진다고 오래전 영화에서 본 기억이 떠올랐다.
- 최정욱 위원 : -<본방을 보자>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쏘인 노래방이 방송된다. 참여도도 좋고 참신한 시도여서 매우 기대되는 프로그램인데 연결상태가 좋지 못해서 흥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 배경음악과 참가자의 목소리의 전달 속도가 다르게 들렸다.
-광주MBC 애청자이자 시청자 위원으로서 특집방송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 5월에 방송되었던 <나를 찾아줘> 같은 경우 자타공인 완성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런데 6월 <민주야, 학교 가자!> 이후로 특집방송이 없어서 아쉽다. 새로운 테마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광주MBC 역량을 믿기에 좋은 특집방송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방송되었으면 한다.
- 조경완 위원장 : -김영진 씨가 나왔는데 잘하더라. 서구에 출연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했던 분인데, 역대 정치해설가 중에서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잘했다. 섭외를 잘 한 것 같다. 나잇대도 적절한 것 같다. 오늘 회의도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8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

끝.